

아낙의 너울을 벗고 권력에 맞서 정론을 외치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격정의 문장들

김경미 지음



명예 이에 비치어 죽은 지아비 신(臣) 이이명의 끝없는 한과 원통함을 시원하게 씻고 복관하여 제사 지내기를 명하셨습니까.” 조선 후기 여성들이 올린 상언을 비롯해 근대 계몽기 여성의 상소, 통문은 당대 여성들의 살아있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

유교 가부장제 사회의 강요된 부덕(婦德)을 감내해야 했던 고전적인 여성상과는 거리가 있다.

권력과 시류에 맞서 목소리를 냈던 여성들을 조명하는 책 '격정의 문장들'은 역사 속에서 잊혀졌던 여성들을 소환한다. 이들 가운데는 더러 이름난 가문의 출신도 있지만 생애는 물론이고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저자는 이화인문과학원 김경미 교수로, 지금까지 고전 소설을 사회학적, 젠더적 시각에서 연구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책에는 관습에 도전한 여성의 목소리도 담겨 있다. 개인이 국왕이나 관에 역올한 일을 호소하는 제도(原請)가 있는데, 원정의 한 예로 평민이 올린 글이 눈길을 끈다. 조원서의 처가 딸을 구명하기 위해 관에 제출했던 원정이 그것이다.

딸이 남편에게 버림받고 양반가 첩으로 들어갔던 모양이다. 이에 절개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사회적 비난은 받을 수 있어도 관의 처벌을 받을 일은 아니라는 논리다.

“설령 처를 버린 남편이 와서 정소를 한다 해도 남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천하다고 할 뿐입니다.

다. 훗날의 경계를 위해서는 삼중지도를 잃었지만, 그렇다고 어찌 재혼할 수 없단 말입니까?”

근대 계몽기에 이르러 여성들을 주 독자층 삼아 한글로 간행한 제국신문 등 신문이 발간됐다. 신문은 근대 여성 의식이 형성되는 공론장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독자투고였다.

일반적으로 당시 여성 독자투고는 과부 개가와 첩, 여성교육에 집중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국제보상운동에 호응하거나 기부하며 쓴 것이 많다. 다음으로 여성교육이었다. 또한 여성들은 신문의 효용을 비롯해 개인적 사연, 개가, 첩에 관한 문제에도 관심을 보였다.

황성신문(1906년 5월 15일)에 신낭자라고 밝힌 여성이 투고한 글은 여성 교육을 강조한 내용이다. ‘여자교육이 없어서는 안 된다(女子教育이 不可無)’라는 제목부터 주장을 집약해 한다.

“어떤 이는 ‘남자교육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어느 겨를에 여자교육을 시작하겠는가’라고 함부로 말하거나 ‘남자만 교육해도 이미 충분한데 무엇 때문에 여자교육에 관심을 두겠는가?’라고 하는데 이는 진화의 시대에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낸 원리에도 전혀 무지한 것이다!”

사실 여성들의 목소리는 오래도록 드러나지 않았다. 저자는 드러나지 않았다 해서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규정한다. “주변적으로 간주되어 온 존재들로 하여금 자신의 자리를 찾게 하는 것”이 책을 펴낸 이유일 것이다.

〈푸른역사·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



조선 후기 여성들과 계몽기 여성들은 당대 권력과 시류에 맞서 문장과 목소리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했다.

토니오 크뢰거

토마스 만 지음, 문미선 옮김

20세기 독일의 가장 위대한 소설가로 꼽히는 토마스 만. 그는 26세에 발표한 첫 장편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로 1929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토마스 만이 28세에 발표한 '토니오 크뢰거'는 그의 최고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무엇보다 이 작품은 토마스 만의 모든 작품을 응축시켜 놓았다 해도 될 만큼 예술관이 잘 투영돼 있다.

1875년 독일 뤼베크에서 태어난 토마스 만은 아버지로부터 이성과 엄격한 도덕관을, 어머니로부터 정열과 예술적 재능을 물려받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부모님의 기질 차이에 성장기에 고뇌와 방향을 겪었다.

그의 자전적 소설인 '토니오 크뢰거'는 작가의 예술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작품이다. 그는 작품 속에서 '자신은 예술 세계와 시민의 세계 어느 세계에도 속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적인 것, 즉 시민적 사랑' 없이는 진정한 작가로 거듭날 수 없음을 언급한다.

"나는 두 세계 사이에 서 있었어. 그 어느 세계에도 안주하지 못하여, 그래서 좀 힘이 듭니다. 당시 예술가들은 나를 시민이라고 부르고, 시민들은 나를 체포하려고 했죠... 어느 쪽이 내 마음을 더 쓰라리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안이 몰락하면서 토니오 크뢰거는 고향을 떠나 작가가 되고 여자 친구 리자베타 이바노브니에게 문학과 예술가의 기질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는다. 토니오는 여행을 결심하게 되고 고향집에 들려 추억에 젖지만 수배자로 오해를 받는다.

책은 토마스 만이 전하는 예술가의 고뇌와 세계관이 잘 투영돼 있다. 길을 잃은 시민 토니오의 자아 찾기는 고전이 전하는 향기를 담고 있다. 〈북산·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얼터네이트

가토 시게아키 지음, 김현화 옮김

제42회 요시카와에이지 문학상 수상, 2021서점대상 후보작, 다빈치 BOOK OF THE YEAR 21 소설랭킹 1위...

일본 청춘문학의 새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는 가토 시게아키의 '얼터네이트'는 고등학생만 이용할 수 있는 앱 '얼터네이트'가 필수인 현대사회를 그린 작품이다. 작가는 그동안 일본 아이돌 그룹의 멤버로 활동하면서 'שמר סקראבל', '우산을 들지 않은 개미들은', '튜버로즈에서 기다리고 있어'와 같은 히트작을 발표했다.

소설은 SNS 상의 독특한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담아내며 사춘기만이 가지는 복잡한 심리를 특유의 선명한 묘사로 그렸다. 김민영 작가는 "디지털 환경에서 십대들이 맺는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해 질문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막 진짜 삶을 시작하는 10대들의 이야기가 있다"고 평한다.

이루루는 SNS에서 공격받은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얼터네이트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후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다시 시작할지 고민한다. 그의 양가적인 심정은 연애를 하거나 진로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요리 콘테스트의 우승을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보인 에이지를 만나며 마음이 흔들려 교제를 시작한다.

이루루는 악명의 관심들이 두려워 연애사실을 숨긴다. 그러나 어떤 경로로 두 사람의 관계가 밝혀지면서 얼터네이트에 다시 이름이 돈다. 과연 이루루는 우승도 하고 에이지와 만남을 이어갈 수 있을까.

작가는 SNS로 이어져도 변하지 않는 관계의 본질에 초점을 맞춘다. SNS를 매개로 이어질 수 있는 이야기는 오늘의 많은 이들에게 관계와 성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미디어·1만5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비거니즘

에바 하이파 지로 지음, 장한라 옮김

"고기를 안 먹는다고?" 물음표를 던지던 시대는 지났다. 비건을 인스타그램에 검색하면 해시태그 된 게시글만 92만 여 개에 이른다. '00의 비거니즘 일기'라며 본인의 식단을 기록하는 계정도 수두룩하다.

대학마다 비거니즘 동아리가 마련돼 있고 식품회사는 비건을 타겟으로 한 제품을 끊임없이 생산해 낸다. 비건 립밤부터 라면까지 비건이 없는 제품을 찾기가 더 힘든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듯 비건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MZ세대 트렌드로써 '유행'이었다가 지향하고 노력해 나가는 '문화'로 자리잡았다.

영국 셰필드 대학 사회학과 부교수인 에바 하이파 지로의 책 '비거니즘'은 논쟁의 장에서 비거니즘이 단지 식단 선택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비거니즘을 급진적 사회운동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어떤 개념을 복구해야 하는지 등을 설명한다.

오늘날 비건에 대한 관점은 다양하다. '식물도 고통을 느끼면 어떡해?', '곡물 수확할 때 죽는 쥐들은?' 하며 동그란 눈으로 묻기도 한다. 비거니즘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정치, 실천, 이론도 다양하다.

이에 저자는 식습관 그 이상으로 자리잡은 비거니즘을 젠더학, 장애학과 같이 하나의 학문인 '비건학'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600만 시대에 키우는 동물의 눈을 바라봤기 때문일까. 오늘날 우리는 '개 패뿔'이란 단어에 반응하고 동물을 넣은 술에 분노한다. 책을 읽고 나면 '원래 다들 이렇게' 동물을 먹는 거란 말에 강한 물음표를 던지며 동물과 공존하는 법을 다시 생각해 본다. 〈호밀밭·2만2000원〉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